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Kimin An 안기민 사도요한 (510) 562-3843 email : joannesan2011@gmail.com 사목회장 정일양 안드레아 (오일공)육철이-삼구구육 email : iychung53@yahoo.com	사무실 Tel (510) 553-9434 Fax (510) 639-4842 email : standrewoak@gmail.com 화, 목 휴무 선종봉사회장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	--

미사	주일미사	오전 8시/11시	성사	고백성사	매 미사 30분 전
	평일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 토 오전 11시		유아세례	사무실에 신청
				혼배성사	3개월 전 사무실에 신청
				환자봉성체	병자성사는 언제든지 신청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매주일 오전 9시 반 ~ 10시 반	성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성령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예비자교리	매주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향심기도회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주일학교	매주 주일 오전 9시 15분 온라인
	지속적인성체조배	일시 정지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1시

< 연중 제30주일 10월 23일 미사 전례 >

[제 1독서] 이사 2,1-5

[화답송] 시편 98(97), 1.2-3, 4.3, 4-5-6(◎ 2 참조 또는 3, 4)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 2독서] 로마 10,9-18

[복음환호송] 마태 28,19.2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마태 28,16-20

[성가]	8시	입당	17	봉헌	512	성체	172 152	파견	63
	11시	입당	17	봉헌	512	성체	172 152	파견	63

전례 봉사

	연중 제30주일 (10월 23일)		10월 25일(화)	10월 26일(수)	10월 27일(목)	10월 28일(금)	10월 29일(토)
	8시 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명국 바오로	이은자 마트로나	—	—	—	—	허홍숙 세실리아
독서	정일환프란치스코 정영희 클라라	권창모 미카엘 오자영효주아네스	—	—	—	—	이명란 아네스
제의방	이선미 에스더	이은자 마트로나	—	—	—	—	허홍숙 세실리아

☞ 성당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손세정제를 꼭 사용**해 주십시오.☞

10월 구역반 모임		
오클랜드	10월23일(일)미사후	교육관 107호
캐스트로밸리	10월23일(일)미사후	소망방
헤이워드	10월26일(일)6시	윤춘주 세레나 댁
알바니	10월23일(일)미사후	이건호 요한 댁

◆ 성령기도회 피정

일시 : 11월 5일(토) 오전 9시
장소 : Mercy Center, Burlingame, CA

◆ 10월 30일(일) 교중미사 후에 고 박인준 아브라함 1주기 연도가 있습니다.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문의 : 이선희 막달레나(오일공-오육육-공오팔이)

◆ 본당 도서실 운영

문의 : 최은하 스텔라(오일공-구일팔-칠이공육)

◆ 본당 청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11시 30분, 누구나 환영합니다.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공동체 기도 지향

송성관 토마스, 부흥신 마티아, 정연중 비오, 한서연 수산나, 박영자 마리아, 신선아 헬레나, 최환준 분도, 전옥분 크리스티나, 조상희 마리아, 송정현 헬레나, 박영자 클라라, 송인환 토마스, 신정열 율리엠타, 최라파엘, 심연자 데레사

◆ 육아가다 자매님 헤어컷 봉사는 매월 둘째/넷째 주에 있습니다.

* 교우분들이 주시는 모든 도네이션은 빗자루회에 기부됩니다.

◆ 주임신부님 휴가로 토요일 전까지 평일미사(화, 수, 목, 금)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지난 주에 지봉공사해 주신 봉사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지난 한 주간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시몬(10/28) : 박인규, 이인학, 최용일, 김원덕, 박상일, 지창민, 박찬길

* 타데오(10/28) : 최몽열

◆ 오늘은 전교주일로 매일미사 책 119쪽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 오늘 미사 중에 전교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10월 목주기도 성월

10월은 목주기도 성월입니다. 매 미사 전에 목주기도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다섯째) 주 지향 : 본당 공동체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 11월 위령성월

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주일 교중미사 20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형제자매, 친인척, 조상님, 교형자매를 위하여 연도를 바칩니다.

◆ 11월 위령성월 묘지미사

* 11월 2일(수) 오전 1시, Mausoleum, 헤이워드 묘지 - 헤이워드 묘지 관리 측에서 지정한 장소인 Mausoleum이라는 곳에서 오후 1시에 있습니다.

- 당일 수요일 오전 11시 미사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11월 5일(토) 오후 2시, Gate of Heaven

◆ 성경 통독

10월 집회서 읽기 분량 : 집회서 8,1-11,34

◆ 견진 성사 안내

내년 1월에 견진 성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11월 말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모임

재정분과위원회 : 오늘 오후 1시, 교육관 106호실

◆ 사무장 사임

지난 14년 동안 본당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본당 신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본당 사무행정 일을 해주신 송일란 베로니카 자매님이 개인 사정으로 10월 31일 날짜로 사무장직을 사임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사목회 부회장 사임

사목회 부회장 김찬곤 안드레아 형제님이 가족 역이민 사정으로 10월 31일 날짜로 부회장직을 사임합니다. 사목회 새 부회장에 김경년 베드로 형제님을 위촉합니다.

◆ 밥나눔 안내

- 오늘 김상실 가를로 형제님께서 떡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식사 전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질서를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노드는 왜 하는 것일까요?(출처: 월간 빛잡지)

2021년 10월 17일, 전세계 가톨릭교회가 일제히 개막미사를 거행하면서 제16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이하 시노드)가 3년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예년과 달리 이번 시노드는 주교님들만의 회의가 아니라 모든 가톨릭 신앙인들이 참여하는 여정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질문 1. 시노드는 왜 하는 것일까요?

모든 위기는 기회인 법입니다. 평소 건강에 대해서 별생각 없이 지내다가 건강검진에서 혈압이나 혈당수치가 갑자기 치솟으면 그제야 식생활에 신경쓰고 운동도 하게 되지요.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도 일종의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기회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이 갖가지 불평등과 불의, 갈등으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어렵게나마 알면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리가 먼 것이라 여겼습니다. 민족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같은 문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지요. 기후 변화를 걱정하고 개탄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그 우려를 실천으로 옮기는 데는 더더욱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의 집'인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경쟁자 이웃의 실패를 당연하게 여기는 개인주의적 태도가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세계인 모두가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홀로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해도, 누군가 감염되고 나면 방역의 벽은 무너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런 깨달음을 “한 사람의 불행은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된다.”는 말로 축약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타인과 세계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노드는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방향을 향해 마음과 뜻을 모으는 기회라 하겠습니다.

질문 2. 더 나은 세상을 위한다니 뜻깊은 일이긴 한데, 그걸 왜 우리가 하나요?

교회가 위기 속에서 세상의 빛이 되었던 경험들은 역사 속에 무수히 많지만, 한 예를 들자면 서기 250년에 로마제국을 강타했던 역병(Plague of St. Cyprian)이 있습니다. 이 역병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무렵, 로마에서만 하루에 5천 명이 목숨을 잃는 아수라장이 펼쳐집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역병의) 기습으로 자기 집에 갇혔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군중들의 집이 하나하나 침범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몸서리를 치며 감염을 피해 피난을 가면서 사악하게도 자신이 소중하게 아끼던 사람들도 팽개쳤습니다.” 로마제국의 공권력은 역병 속에서 상황을 완화시킬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했습니다. 대가를 바

라지 않고 약자를 돌보는 일을 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반면 가톨릭교회는 주교들의 지도하에 체계적인 병자 구호활동을 벌이고 환자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교회의 활약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던지,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목숨을 내던진 자’(파라볼라니)라고 부르며 감탄할 정도였지요. 3세기의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신앙이 오히려 더 확산된 데에는 이런 공동의 헌신과 보살핌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렇듯 갈라진 세상에 더불어 사는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삼위일체 하느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각각 구별되면서도 한 분이시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느님을 닮아 창조된 우리 인간도 각각 구별되는 고유한 가치를 간직한 채 일치를 이루도록 불림 받았습니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어느 한 사람, 한 생명도 팽개치지 않고 하느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여정, 이것이 신앙의 길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일찍부터 함께하는 여정을 교회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려고 애썼습니다. ‘시노드’라는 말도 ‘함께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신앙과 교회의 이상이 항상 역사 속에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가 나뉘어져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저 하라는 대로 따르는 것이 신앙의 길인 양 여기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이번 시노드를 통해서 모든 신앙인들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서로 대화하고 경청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3. 회의 한번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시노드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한다고 해서 교회와 세상이 단번에 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아무리 좋은 제도나 규정을 도입하더라도, 사람들의 뉘뉘이가 달라지지 않으면 쇄신이 이루어 질 수 없겠지요. 이번 시노드는 회의를 통해서 세상을 구할 묘안을 짜내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시노드는 함께하는 정신을 배우고 터득하는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여정에 관하여 함께 성찰함으로써 교회의 다양한 지체들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서로의 체험과 관점을 나누고 경청하는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야 할 쇄신의 길을 배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느님 말씀의 빛으로 기도 안에 하나 되어, 더욱 깊은 친교, 더욱 온전한 참여, 세상 안에서의 사명 수행을 위해서 함께 가는 여정을 직접 체험하고 배워보자는 뜻입니다. 시노드를 형상화하는 그림만 봐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이란 남녀노소, 신분과 처지를 가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 아래 함께 가는 길을 뜻한다는 점을 시노드 문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우리의 정성

< 미사 참례 인원 : 8시 - 45명 / 11시 - 161명 총 206명 >

< 주일헌금 >

< 교무금 >

채성일(9-10) 김영희(11-12) 이종규(1-6) 이덕용(10) 김관숙(10) 김상실(9-12) 추혜성(9-10)

< Bishop's Appeal >

이종규(1-6) 이덕용(10) 추혜성(7-10)

< 성소후원금 >

이덕용(10)

< 감사헌금 >

—

< 빈첸시오 >

추혜성

< 선교 >

—

복음을 읽고 실천하는 공동체

- 미사 지향

날짜		지향	봉헌자	날짜		지향	봉헌자
10/23(일)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명국)		생	심데레사	이골롬바(정연)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생	김카타리나(아레)	자녀들
	연	유데레사(춘성)	가족		생	김카타리나(아레)	임루시아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아/아네스		생	김카타리나(아레)	원젬마
	연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 가족		생	김카타리나(아레)	김엘리사벳
	연	정미카엘	가족		생	김카타리나(아레)	김안젤라(영선)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생	신막달레나	김마리아(양산)
	연	조바울라(숙자)	조바실리오(진행)		생	임스텔라 가정	임루시아
	연	이야고보(원진)	가족		생	김유릿다(정희)	김시몬(원덕)
	연	이마리아(호순)	이에스터		생	김유릿다(정희)	임루시아
	연	박아브라함(인준)	박로사 가족		생	박시몬(상일)	박클라라(미경)
	연	김시몬(형준)	김클라라(영미)		생	선혜/헬렌 브레인	채줄리아
	연	정베드로(창희)	정아가다(청자)		생	채헬레나(용분)	채토마스
	연	민클라라(정희)	민제노베파		생	채헬레나(용분)	이에스터
	연	김도미니코(광근)신부	박세레나(동신)		생	채시몬(홍락) 신부	이에스터
	연	김도미니코(광근)신부	임루시아		생	장소피아(재은)	장베드로(재민)
	연	김도미니코(광근)신부	박클라라(영자)		생	김도밍고(원조)	이야고보/카타리나
	연	김도미니코(광근)신부	강수산나		생	최시몬(용일)	이야고보/카타리나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가족		생	이에스터	성모회
	연	전데레사(숙희)	김엘리사벳		생	황해은 앨러비	김크리스티나(관숙)
	연	전데레사(숙희)	임루시아		생	장민우	송아네스(성숙)
	연	홍버나뎃(민선)	홍요한(순원)	10/29(토)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명국)
	연	정스테파노(영균)	정루치오(현준)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연	황프란치스코	김안젤라(영선)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연	조엘리사벳(영순)	이안젤라(진의)		연	이야고보(원진)	가족
	연	이강년	이미카엘(종규)가족		연	권엘리사벳(영희)	박헬레나
	연	원용락	원프란치스코		생	심데레사	심베로니카
	생	주임신부	임루시아		생	김카타리나(아레)	자녀들
	생	심데레사	심베로니카		생	조프란치스코/헬레나	빛자루회
	생	심데레사	이마태오(영기)		생	조마리아(상희)	유리디아

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사 이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건강상담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	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Fax (925)803-0204	광고 문의 성당 사무실 510-553-9434	J & J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와 바디수리 ☎(510)236-0550 강요한
--	--	---------------------------------	--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